나전칠기 찬란함 담은 수월관음도 제막

마산 정법사, 10월 10일 점안식 봉행

역사성 · 지역문화 특성 반영
신중목탱화 · 산신각 점안도
영축 다도회 20주년 기념식

성낙두 경남지사장

통도사 마산 포교당 정법사가 지역과 역사 그리고 지역 문화를 고스란히 담은 새로운 형식의 수월관음도를 선보였다.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주지 도문)는 '수월관음삼존도, 신중탱화 및 산신각 점안식'을 10월10일 정법사 4층 원통보전에서 봉행했다.

정법사 수월관음도는 30여 색의 유색을 입혔으며 옷칠과 수 만개의 자개로 조성된 새로운 형식이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 화려함의 극치를 드러낸다는 평가다. 아울러 바다와 인접한 마산 지역민의 안전을 기원하는 용왕을 새겨 넣어 의미를 더했고 경봉 스님의 글씨도 담았다. 경봉 스님은 정법사 초대 주지로 경남 포교의 기틀을 세웠다. 경봉 스님이 작성한 '관음정진'을 새겨 사부대중에게 포교와 정진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원통보전에는 은행나무 신중목탱화와 산신각 점안식도 함께 봉행됐다.

점안식에는 주지 도문 스님. 통도사 국장 종현 스님, 통도사 염불원장 영산 스님과 김성수 통영 옷칠 관장, 김규리 불모 등이 참석해 점안의식을 축하했다.

점안식은 △삼귀의 및 반야심경 △예불 △점안식 △인사 및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도문 스님은 "이번 중창불사는 '옛 것을 본받아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다'를 주제로 삼았다"며 "새로운 기법으로 조성한 수월관음도가 완성도가 뛰어나고 색감도 은은해 아름답다. 바다에 인접한 지역의 특성에 맞춰 관음도량으로 대작불사를 이루었다. 모두가 동참하는 관음보살행으로 관음도량의 완성을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규리 불모는 "주지 스님과 사부대중의 도움으로 13개월 동안 정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했다"며 "주지 스님과 불자들에게 깊이 감사한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한편, 정법사 영축다도회가 20주년을 맞아 다도를 통해 선의 정신을 전하며 불교문화를 통한 포교 선두로 활동할 것을 다짐했다.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 영축다도회(총재 도문)는 10월 9일 '영축다도회 20주년 기념 영축 차 향기' 입재 법회를 정법사 2층 만불전에서 개최했다.

행사에는 영축다도회 총재 도문 스님(정법사 주지), 대구 삼성암 각정 스님, 허성무 창원 시장, 강병곤 합포구청장, 박옥순 도의원, 황종규 문화관광국장, 밀양 만우도예 윤태완 회장 및 회원들이 동참해 축하했다.

법회는 △개회사 △삼귀의례 △반야심경봉독 △선고 차인에 대한 묵념 △음성공양 △인사말 △내빈소개 △연혁보고△축사 △역대회장 소개 △공로상 및 감사패 전달 △다법 시연 순으로 진행됐다.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가 '수월관음삼존도, 신중탱화 및 산신각 점안식'을 10월10일 정법사 4층 원통보전에서 봉행했다.

◀정법사에 안치된 '수월관음삼존도' 모습.

이날 공로상은 전정현 한국차인연합회 부회장이 수상했으며 감사패는 영축다도회 역대회장인 이금선 외 5명이 받았다.

영축다도회 20주년 기념행사는 운수 선차 시연 및 차와 물을 주제로 이병인 부산대 교수의 강의, 밀양지역 도자기 10인 특별 작품전 및 접빈 찻자리 등 다채로운 행사로 3일에 걸쳐 진행됐다.

영축다도회는 2001년에 1기를 모집해 현재 1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기초 3년 과정 수료생은 234명, 사범교육 2년 과정을 거쳐 5년 과정을 이수한 졸업생은 132명이다. 5년 이상 연구반에 등록된 인원은 78명으로 다도 전문인 양성 및 전통문화 전수에 앞장서고 있다.

김해 바라밀선원, 증축불사

10월 10일 기공법회 봉행

선방 · 명상실 조성 추진

김해 바라밀선원이 증축불사 시작을 알리는 법회를 봉행하고 발전 및 도약을 기원했다.

바라밀선원(주지 인해)은 10월 10일 경내 법당에서 '바라밀선원 증축기공법회'를 봉행했다.

증축기공법회에서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 스님이 법문으로 정진과 화합을 당부했으며 이웃을생각하는모임 회장 혜진 스님을 비롯해 김해 및 부산에서 방문한 스님 · 재가불자들이 참석해 축하했다.

바라밀선원은 김해를 대표하는 전법도량으로 8년 전 신도시 내 작은 상가에서 문을 열었다. 주지 인해 스님은 도량 이전을 위해 1000일 기도를 입재하며 사찰의 발전 뿐 아니라 김해 가야문화 재고찰 및 연구로 불교문화 확산에 앞장섰다. 이를 위해 김해 지역 스님들과 합심해 옛 가야국의 의미를 강조하고 가야 불교 문화의 성지로 이끄는 선봉장으로도 활동했다.

바라밀선원은 갤러리 및 법당, 카페가 있는 현대식 신축법당으로 3년 전 이전 개소했다. 바라밀선원은 증축기공 법회를 통해 '선원'으로 도약 발전하겠다는 다짐이다.

현재 바라밀선원은 1층 법당 및 공양실, 2층은 북카페 및 갤러리로 운영되고 있다. 증축불사를 통해 3층은 법당, 4층에 선방 및 명상실, 관음전이 위치한다. 5층은 지대방 및 다용도실이다. 완공 후 도량 연면적은 1650㎡(500평)이며 2021년 4월 준공이 목표이다. 현재 2층으로 건축된 바라밀선원을 5층으로 증축, 선방 및 명상실을 더한다.

인해 스님은 "바라밀선원은 이름 그대로 선원이다. 선원을 늘려 마음공부의 핵심 도량이 되도록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구례 화엄사 조실에 명선 스님 추대

10월 9일 문장 · 회주 추대도

"교구 내 대중의 화합" 강조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 조실에 조계종 명예 원로의원인 명선 스님이 추대됐다.

구례 화엄사(주지 덕문)는 10월 9일 경내 각 황전에서 봉행한 도강 · 도천대종사 합동추모제〈사진〉에서 화엄사 조실에 금성당 명선 스님, 문장에 은산당 종국 스님, 회주 송천당 종열 스님을 추대했다.

조실에 추대된 명선 스님은 "미력하나마 대중화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스님은 "화합을 하면 안 되는 일이 없고 마침내 성불에 이를 수도 있다. 사회가 복잡할수록 화합을 통해 모든 것이 잘 해결되고, 답을 얻을 수 있다"며 교구내 화합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최근 구례지역 수해를 언급하며 "이번에 구례지역 수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많았는데 대중들이 솔선수범하여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 구례군민과 먼 곳에서 어려움을 나누기 위해 참여해 주신 종단의 스님들과 신도들에게도 감사하다"고 전했다.



도강 · 도천대종사 합동추모제는 오전 10시 30분 화엄사 선다회의 차 공양을 시작으로 죽비삼배, 도광도천대종사 육성 녹음, 행장소개, 헌다, 반야심경 봉독, 헌화에 이어 조실추대, 부도 참배로 마무리 됐다.

이날 행사에는 명선 스님, 종국 스님, 종열 스님을 비롯해 주지 덕문 스님 등 교구문도 100명이 참여해 두 큰스승의 뜻을 기리는 행사를 가졌다.

한편 명선 스님은 1952년 전남 담양 보광사에서 도천 스님을 은사로 출가, 화엄사 주지, 중앙종회의원, 원로회의 부의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여수 흥국사 주지, 여수불교사암연합회장 등을 맡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사명대사 호국 · 애민 정신 계승한다

부산불교聯, 10월 12일

열반 410주기 추모대재

호국영웅 사명대사의 열반 410주기를 맞아 부산불교가 사명대사의 열반을 추모하며 코로나 극복과 국운융창을 위해 한 목소리로 기도했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경선)는 10월 12일 부산어린이대공원 사명호국광장에서 '사명대사 열반 410주기 추모대재'를 봉행했다. 추모재는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경선 스님과 수석부회장 세운 스님, 박수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회장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국발원문과 봉행사 및 대재사, 추모가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장 경선 스님은 대재사를 통해 부산에서 활동한 사명대사의 역할을 강조하며 호국의 의미를 강조했다. 부산은 사명대사가 왜군을 맞서 전투를 한 곳이며 아울러 돌아온 포로를 다시 맞은 관문이라 호국 정신과 의미가 남다른 지역이란 설명이다.

경선 스님은 "부산은 많은 왜적의 침입을 맞서 받아냈던 전쟁터였고 전쟁 후에는 볼모로 잡혀간 백성들이 돌아온 관문이었다"며 "사명대사는 전쟁 중에도, 후에도 부산을 중심으로 호국애민정신을 실천했다. 오늘 부산불교연합회에서 봉행하는 추모재는 사명대사와 승병들의 호국 정신을 오롯이 드러내는 뜻 깊은 행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현재 전 세계 재난에 맞서 생명과 이웃을 지켜야 하는 상황에 있다. 민초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았던 사명대사의 대의처럼 자비심으로 극복하자"고 당부했다.



부산불교연합회는 10월 12일 부산어린이대공원 사명호국광장에서 '사명대사 열반 410주기 추모대재'를 봉행했다.

한편, 부산불교연합회는 10월 24일 오후2시 범어사 선문화교육관에서 '2020 부산 팔관회'를 봉행한다. 매년 3일에 걸쳐 개최되어 왔지만 코로나 19 방역을 위해 행사를 하루로 축소해 진행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